



봉침요법강좌

봉침료법과 만성관절류마티스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 = 일본옥천대학등전양자, 단치성랑교수

번역 = 고상기 한국봉침료법 연구회 회장

(이 논문은 일본 옥천대학 풀벌과학연구소 발행 "풀벌과학"지 20권 1호(1999년)에 발표한 것임.)

다음에 組織破壞(조직파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침구치료에 있어서 국소의 작용은 筋線維(근선유)에 상처를 내거나 피부표면에 화상을 일으켜 일부의 조직을 파괴시켜 생체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수복과정을 기대한다. 봉침치료에 있어서는 좀더 강력한 조직파괴작용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봉독의 약리작용으로 국소파괴, 용혈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 피내에 주입하기 때문이다. 조직파괴에서 수복과정(수복과정)을 기대하는 점에 있어서도 봉침 쪽이 훨씬 큰 조직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더 많은 수복과정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RA의 증상인 관절의 통증에 대해서 봉침이 더욱 유효한 이유에 대해서 봉독의 약리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봉독의 추출액을 주사액으로 해서 실험해본 결과 통증을 없애는 진통 또는 지통약으로서 82%의 유효율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太田, 鳥居, 1997) 그의 봉독의 성분에는 神經毒作用(신경독작용)을 갖고 있는 펩타이드류의 이퍼민이 있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도 통증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봉독 속에 있는 어떤 작용이 2주간에 걸쳐 血漿(혈장)중에 고르치졸의 수치를 5~6배로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며(Mraz, 1985) 이에 따르면 자기가 고르치졸을 生成시킬 수가 있어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를 체내에 넣을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고르치졸에는 인간이 원래부터 강력한 抗炎症作用(항염증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가설에 妥當性(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自然治癒力(자연치유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봉침료법은 유효환자도 많고 완치되는 질병도 많은 놀라운 요법이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봉독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봉독알레르기의 사람은 벌 1마리에 쏘였는데도 용태가 심하게 나빠져서 위험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봉침으로 치료할 때에는 환자가 봉독 알레르기 체질인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며 봉독과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봉독알레르기가 아닌 환자에게도 지

나치게 봉독양을 많이 주입하면 봉독과다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는 봉독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봉침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도 절대로 직자를 삼가고 발침하여 아주 약하게 하여야 한다. 봉독과다주입을 막기 위하여는 봉독의 양은 적게 자극의 강도는 약하게 치료간격은 길게하는 것이 최상이다.

봉침료법은 주의할 점도 많지만 난치병인 RA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아직 봉침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봉침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치료를 받았으나 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러는 동안 병은 악화되고 RA의 경우 관절변형까지 온 다음에야 봉침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봉침으로 치료하는 회수와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효율이 높은 봉침치료를 받기 위하여는 좀더 조기에 봉침치료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효율이 좋은 치료를 위하여는 일반인에게 봉침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역시 실험이나 연구를 해서 결과를 널리 알리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이쉽게도 봉침료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봉침요법을 길게 이해하고 이에 중시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日本의 경우 침구사나 한의사들도 넓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들이 소속하고 있는 동경위생학원의 자매고인 신내천위생학원전문학교의 전신인 소전원위생학원에서는 김성언일 선생이 봉침강좌를 하고 있었다. 침구사 및 한의사들이 봉침료법을 응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한의사나 침구사는 동양의학의 경락이나 경혈을 배우고 또 의학적인 이론도 배웠으며 환자의 신체의 각 반응점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침구의 장점은 질병만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몸 전체의 바란스를 진찰하고 여기에 알맞게 환자의 전신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침치료와 침구치



료를 병용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실제 침구사가 어떻게 봉침료법을 응용하는지 그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벌들의 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벌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양봉업자에게 그 관리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방의 양봉가에게 벌들을 조금씩 분양받으면 된다. 그래서 벌침의 침투深度(자입심도)나 接觸程度(접촉정도)와 가감(가감) 등 어려운 것도 양봉업자나 봉침전문가들에게 배우면 된다. 더욱이 일본봉침료법연구회에서는 봉침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봉침기능시험을 치르고 있다. 한 의사나 침구사가 침구행위를 행하는 경우는 국가시험으로 치르고 免許를 받고 치료할 수가 있으나 봉침치료는 민간요법으로서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봉침료법을 행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확신과 확고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꿀벌에게 눈을 돌려보자. 봉침료법과 꿀벌의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이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꿀벌의 생활에는 불가사의한 점이 많다는 것과 흥미진진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왕봉 1필에 대해서 3~4만 마리의 일벌과 수벌이 있어 꿀벌의 왕국을 만들고 오직 꿀벌들의 왕국만이 말벌이나 다른 종류 벌들과는 다르게 1년 내내 봉군을 유지한다. 그중에서도 일벌들은 평생 일만 한다. 벌통 내부의 청소, 육아, 집 만들기, 소문지키기, 꿀이나 꽃가루의 채집, 여왕봉이나 수벌에 대한 보살핌, 그의 더울 때는 집을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집을 따뜻하게 한다. 이와같이 일평생을 일만 하는 일벌의 목숨을 사람의 건강을 위한 치료용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다. 꿀벌들의 생명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중하게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침요법(蜂針療法)과 봉산물(蜂産物)의 활용방안(活用方案)과 전망(展望)

1. 봉침과 봉산물과의 상관 관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남의병을 고쳐주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서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고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느니라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처방은 현대의 학보다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전통의 민간의학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자연식품을 이용한 건강자연요법은 미래의 각종 질환으로부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획기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병원은 일단 발병이 되었을 때 찾는 것이 통례이고 민간요법은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는 능력이 크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보여주므로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의료 행위들이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요법의 한 분야로 활발한 연구를 하도록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체의학 요법들이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등 세계 각국에서 다투어 대체의학 학회가 설립되어 이분야에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21세기 새로운 의학분야로 확고한 자리를 지켜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꿀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봉산물 즉 벌꿀, 로얄제리, 꽃가루, 푸로폴리스, 밀랍, 봉독등을 유효적절히 활용해서 건강을 다스리는 봉료요법과 꿀벌이 가진 봉침을 활용해서 질환을 치료하는 봉침요법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봉료봉침요법이야말로 급세기 최고의 민족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꿀벌을 사양관리하는 우리들 양봉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훌륭한 민간요법이 또 있겠습니까?

봉료라는 말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에는 봉침이나 봉독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봉침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봉침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봉침기술은 꿀벌의 침을 이용하여 환부나 인체 경락에 따라 피부에 자침하므로서 질병을 예방내지 치료하는 민간요법이며 그 경지는 침구 의술과의 결합과정이 필연적인 작은 의술입니다. 때문에 봉침기술의 끝은 침구학의 부단한 연구와 환자의 체질에 따른 개인별 치료방법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고 고도로 한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몇몇분을 제외하고 우리들 양봉인이 양봉영역을 하면서 접하는 봉침기술은 그러한 경지까지 도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봉인들이 쉽고 효과있게 할수있는 봉침요법은 바로 봉산물을 유효 적절히 이용하는 즉 봉료를 활용하면서 여기에 봉침술을 추가해주는 봉료봉침요법기술이 효과면에서도 봉침술 한가지만을 적용했을 때보다 탁월한 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봉침요법연구회의 공식명칭이 이번 총회에서부터 한국봉료봉침요법연구회라고 "봉료"라는 말을 추가하게 된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본 회의 공식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국봉료요법연구회"로하여 문제가 되는 봉침을 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침"자가 들어가면 침구술로 오인받아 의료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많고 관계기관에서 볼때도 색안경을 끼고 거부감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봉침을 빼게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칭은 봉료요법연구회라고 할수있겠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봉침기술이기 때문에 안이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옳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